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박사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어두웠던 출판계에 한 줄기 빛이었다.

그동안 책을 등한시했던 사람도 서점에 방문하게 했으며 문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사건 속 개인의 고통과 내면을 섬세히 담아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사고의 여지를 제공했다.

한국 문학은 한 작가의 성취를 통해 유례없는 관심을 얻게 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책을 읽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독서문화 회복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기에 문학을 접하며 세계관을 확장하고, 사고와 공감을 배우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디어의 출현은 책과 멀어지고 빠른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책을 읽고 사유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은 AI를 넘어 AGI(인공일반지능)는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며, 언어, 영상, 음성 같은 정보나 여러 지식 분야 등을 가리지 않고 습득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AGI는 학습능력에 있어 새로운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하며 인간과

AI 시대, 다시 책으로

같은 추론능력을 갖춰 사고와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미디어가 생활 곳곳을 점령한 시대, 우리는 점점 더 스크린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뉴스, 영상, SNS 등 정보는 실시간으로 소비되지만,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을 요구하는 책과 문학은 상대적으로 멀어진다. 한국 성인의 독서율이 최근 조사에서 43%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대에도 책과 문학의 가치가 다시 부각돼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검색 한 번으로 방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화면을 스치듯 넘기며 하루에도 수백여 개의 콘텐츠를 소비한다.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빠른 속도 속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힘과 인간다움이다. 이에 인공지능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책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책은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길러준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준다. AI가 사고를 흉내낼수록, 인간의 깊이 사고력은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둘째, 독서는 인간의 공감 능력을 확장한다. 인공지능은 감정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떨어진다. 갈등과 분열이 커지는 시대에 사회적 공감과 윤리적 판단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문학은 그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힘을 길러준다.

셋째, 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준다. 디지털 환경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 추천 알고리즘의 정보는 때로는 편향되거나 단편적이며, 무수한 자극 속에서 중심을 잃기 쉽다. 이에 정보의 양이 많아진 시대일수록 판단의 질은 더 중요해진다.

넷째, AI 시대의 창의성은 독서에서 비롯된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만이 아니다.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하고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힘이다.

독서는 이러한 연결의 능력을 강화하며, 창의적 사고의 바탕을 마련하는 능력을 준다.

다섯째, 독서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지켜준다. AI는 점점 더 많은 선택을 대신하려 한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어떤 문장을 쓸지까지 추천하는 시대다.

그러나 추천이 편해질수록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은 약해진다. 독서는 이 능력을 다시 깨우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사고를 따라가되, 결국 자신만의 결론을 세우는 과정이다.

책과 문학은 빠르게 흐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의 끝없는 알림, 짧고 자극적인 영상, 흘러가는 뉴스 속에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바로 마음에도 숨을 쉬게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삶에 있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찾는 시간이며, 타인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문학을 사랑하는 일이며 책을 읽는 것이다.

기고

김정애

광주 동구 경제환경국장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미래 과제가 아니다.

짧아진 봄과 가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시대적 목표로 내세웠고,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시민의 생활 속 실천과 기술의 결합이 있을 때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동구의 자원순환 정책은 이점에서 상징적이다. AI와 주민 참여를 결합해 생활 속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현실화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모든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숙제다. 구도심 단독주택이나 좁은 골목에서는 불법투기와 장기 방치로 몸살을 앓고, 청소차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거나 수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다. 행정력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이에 대응해 동구가 개발한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플랫폼 ‘동구라미 온’은 신고(10포인트), 처리(100포인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불법투기 수천 건이 주민 손으로 처리됐으며, 행정 비용은 98% 이상 절감됐다.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골목에서 지구까지

작은 참여가 모여 공동체 전체의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기술혁신도 함께한다. AI 종량제 배출함은 머신러닝으로 규격 봉투만 인식하고 투입구를 열며, CCTV와 보안등으로 불법투기 방지와 골목 안전까지 지킨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했다. 행정에 는 도시미관 개선과 불법투기 감소 효과로, 주민에는 거점화된 배출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 속 문제 해결의 스마트 솔루션 역할을 한다. 현재 기기 경량화·단가 절감·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며 확대 설치를 준비 중이다.

청소차 도착정보 서비스도 혁신적이다. 앱에서 청소차 도착 시간을 확인해 제때 배출할 수 있어 갈등과 악취, 동물 훼손 문제를 줄였다.

AI와 데이터가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이웃 간 관계 개선까지 돕는 셈이다. 생활문화 혁신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자원순환 정책은 사회적 가치로 확장된다. 카페·노인 일자리·자원순환 플랫폼이 연결된 종이팩 회수 모델이 대표적이다.

카페가 종이팩을 별도로 배출하고, 어르신들이 수거해 친환경자원순환센터로 전달한다.

카페는 포인트 보상을 받는다. 6개월 만에 종이팩 10만여 장을 회수하며 회수율을 전년 대비 700% 이상 끌어올렸다.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카페에는 정책 참여의 보람이 주어졌다.

정책 확산을 위해 행정 지원도 필수적이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환경교

육, 수리·수선 교육, 다양한 생활실험이 진행되며, 실천이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2025 정부혁신 최고 선정, AI 서비스 리더상, 제33회 환경대상,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환경부 장관상 등 다수 수상했고, 4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으며 국제환경 박람회에서도 소개됐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주민 인식 변화다.

불법투기를 신고하고 치우는 주민, 종이팩을 모으는 어르신, 앱을 활용해 생활습관을 바꾸는 청소년 등 마을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돼 참여하며 지역 분위기가 달라졌다.

AI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면, 주민 실천은 그것을 ‘문화’로 바꾸고 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거창한 구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 이 사례는 이를 생생히 보여준다. AI는 주민 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은 작은 실천으로 그 힘을 완성한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가 도시 전체, 국가, 지구의 미래로 확산될 수 있다.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정책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순환경제의 미래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길이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혁신이 도시와 국가, 지구의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

전남 생활인구 프로젝트 지역소멸 대안될까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인구에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와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실제 지역 활력과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그런 관점에서 전남 인구 감소지역 16개군의 생활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등록인구 70만명, 체류 인구 278만명 등 총 348만명이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등록 인구의 5배가 전남을 오가며 생활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30년까지 21조6345억원을 투입해 ‘생활인구 재생성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24개 시·국·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월 1000만명이 머무는 활력 전남’이라는 목표 아래 연결-유입-성장의 3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3대 전략인데 먼저 ‘연결’전략은 전 국민이 전남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관계 인구를 넓히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을 통해 전남의 관광, 특산물, 귀농귀촌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 잠재적인 정주 인구로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유입’은 전남에 ‘머무는 이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일·심·체험이 공존하는 체류형 생활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이다. ‘성장’ 전략은 머무는 인구가 전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촌의 유휴 주택 리모델링에 위계이션이나 단기 체류 공간으로 재 활용하거나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전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좋은 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전남에 월 1000만명이 체류할 경우, 올 1분기 전남 생활인구 1인당 평균 소비액(12만3000원)으로 산정한 연간 소비효과는 무려 15조원이나 된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소멸을 막는 데 안이 되길 바란다.

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약’ 계속된다

전남도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의 ‘땀가이 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마을 이장·부녀회장, 생활 밀접 기술을 가진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민간 주도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조직으로 주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의 생활불편 등을 적절 해결해 주고 있다.

낮은 정동 교체, 전기·보일러 수리, 경사로 설치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부터,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의 생활안정 자금 지원까지 총망라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동대원은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480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출범 이래 지금까지 도내 전체 가구의 약 30%인 27만6000여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역주민의 주도 아래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제로 영광군은 ‘희망의 씨앗! 꾸꾸는 공부방’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에게 공부방을 마련해줬고 순천시는 펄감과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전수조사해 ‘전기온수기’설치를 지원했다. 구례군은 복지기동대가 구성되지 않은 오지 산간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복지기동대 ONE팀’을 조직해 낮은 콘센트와 방충망 교체 사업을 추진하며, 완도군은 텃밭을 가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자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래서 인지 사업 초기부터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2021년 행정안전부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지자체자치경연대회’에선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총 103억원의 국비를 확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동력까지 마련했다. 지난해 전북도가 ‘복지기동대’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남도를 방문하는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도움받은 사람이나 봉사자 98%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을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전남 대표 생활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복지기동대의 올 겨울 활약이 기대된다.

취재수첩

내 집 마련, 통계가 보여준 ‘멀어진 미래’

송대웅

경제부 차장



내 집 마련까지 평균 7.9년.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가 보여준 현실이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재 한국 가구의 주거 진입 난도를 압축한 상징 같은 숫자다.

조사 결과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간은 7.7년에서 7.9년으로 늘었다. 2022년 7.4년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흐름은 금리, 물가, 전세시장 변동성

이 서민 주거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시킨다.

자가보유율은 전체 64.4%로 높아졌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수도권은 자가가구 PIR이 8.7배까지 오른 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띈다. 전국 평균 PIR은 6.3배로 변함없지만 수도권만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은 주거격차가 더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지역 PIR도 3.7배에서 4.0배로 상승해 결코 ‘안정권’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3.8%로 올라간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체 주거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미달가구 증가라는 ‘그늘’ 역시 함께 확인된 셈이다. 평균의 온도는 오르지만 취약계층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 ‘평균의 착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6%에서 38.2%로 줄어든 것은 단순히 ‘도움이 덜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반복된 시장 불안과 제한된 제도 효과 속에서 기대감 자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요구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었던 점은 주거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한다.

자가 거주자 평균 거주기간이 11.5년, 임차가구는 3.6년에 그친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다. 이동의 빈도는 곧 불안정성의 반영이기에 임차가구의 짧은 거주기간은 여전히 한국 주거시장의 구조적 숙제를 드러낸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숫자를 나열한 보고서가 아니다. 7.9년이라는 시간, 수도권 PIR 8.7배라는 벽, 청년 임차비율 82.6%라는 현실은 ‘내 집 마련’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주거정책은 시장의 뒤를 따라가서는 의미가 없다. 접근성의 격차가 주거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신호를, 이번 조사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구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370-7060 370-7222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전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